

작가의 사망여부와 거래빈도가 미술품 위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rtists' Death and Trade Frequency on Art Forgery

김나원*, 신형덕**, 정태영**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Na-Won Kim(tlfk5745@naver.com)*, Hyung-Deok Shin(shinhd@hongik.ac.kr)**,
Taeyoung Chung(tychung@hongik.ac.kr)**

요약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까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 진위 감정한 작품을 제작한 183명의 작가 자료를 이용하여 미술품 진위감정의뢰와 위작판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술품 위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작가의 사망여부와 해당 작가 작품의 거래빈도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작가의 사망은 진위감정의뢰 건수와 위작판정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술품의 거래빈도는 진위감정의뢰 건수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위작판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위작에 대한 의심과 실제 위작판정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미술품 위작 | 진위감정의뢰 | 위작판정률 | 작가사망여부 | 거래빈도 |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may affect art forgery, using 5,130 authentication request data drawn from Korean Art Appraisal Board (KAAB) during 2003 and 2012. Living status of artists and trade frequency of artworks of the artists were considered as explanatory variables that may affect authentication requests and forgery ratio. We found that artists' death has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s on both authentication requests and forgery ratio, while trade frequency of artworks of the artists has the impact only on authentication requests. These results imply that art forgery may hav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 keyword : | Art Forgery | Authentication Request | Forgery Ratio | Living Status | Trade Frequency |

I. 서론

위작(僞作)은 타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또는 복제한 작품을 의미한다. 미술품 위작은 오랜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다. 기원전 2000년경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인들이 시리아, 이집트 또는 그리스에서 널리 사용하던 이미지를 자신들

의 도자기, 상아, 금속제품에 도용했으며, 로마의 조각가들도 그리이스의 조각을 복제하였다고 한다[1][2].

근대 이후에는 일반 대중들이 미술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미술품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전문적인 위작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미술품이 상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1970-80년대 이후 중국 조선족을 중심

접수일자 : 2014년 12월 23일

수정일자 : 2015년 0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2월 05일

교신저자 : 신형덕, e-mail : shinhd@hongik.ac.kr

으로 위작이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4].

미술품 위작은 해당 작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2005년 3월에 서울옥션에서 이중섭의 작품 「아이들」이 3억 1천만에 낙찰되자 한국미술감정협회에서 이 작품이 위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정문제로 비화하여 한동안 이중섭의 작품의 거래는 크게 위축되었다[5]. 또한 이러한 분쟁은 미술시장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쳐서 미술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술품 위작이 적지 않고 위작시비가 미술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위작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위작의 사례와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 치중하는 반면 실제로 이러한 위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3][6-9]. 또한 위작을 판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위감정의 발생과 실제 위작판정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 위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작품의 희소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가의 사망여부와 해당 작가의 작품의 판매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빈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진위감정의뢰 건수와 위작판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술품 위작의 현황과 국내에서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고 작가의 사망여부와 미술품의 거래빈도가 위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및 본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II. 선행연구와 가설

1. 미술품 위작의 현황과 사례

미술품 위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가 1982년에서 2001년까지 20년간 감정한 작품 2,525점 중 진품이 68.5%, 위작이 29.5%, 감정불능이 2.1%이었으며[3], 한국미술품감정평

가원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감정한 미술품 5,130점 중 위작이 1,330점으로 그 비율이 26%에 달하였다[10]. 이것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의 약 10%정도가 위작일 것이라는 보고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3].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감정가와 같은 위작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고 감정가의 공신력이 높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3][11].

원작은 아무리 정교하게 복제된 위작이라도 따라올 수 없는 고유한 예술적 혼을 담고 있다[13].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작이 유통되는 경우 미술 시장이 교란되고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7세기 미술가 렘브란트가 파산했을 때 처분됐던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그의 제자들이 그린 것으로 판명되자 렘브란트의 작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의 화가인 페르메르의 걸작으로 알려졌던 「엠마오의 그리스도」도 사실은 메헤렌이 그린 위작임이 드러나자 옛 거장의 대표작으로서 누렸던 가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다[12].

국내 미술시장의 대표적인 위작 사례로서 천경자의 「미인도」 사례를 꼽을 수 있다. 1991년 4월 2일 여류화가 천경자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그림 「미인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국화랑협회의 감정위원회는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발표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종합감정결과도 진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천경자는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억박지르면 어떻하나?”(조선일보, 1991년 4월 11일자)고 하면서 미술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예술원 회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3].

2. 작가의 사망여부와 미술품 위작

본문: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작품의 크기, 재료, 바탕 재질, 작가의 나이, 명성, 사망여부, 작품 판매시기, 경매회사 등이 미술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14-19]. 이 중 작가의 사망은 동일 작가의 미술품의 희소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작가의 사망이 작품의 평가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17][19]. 작가가 사망함에 따라 미술품의 공급이 제한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작가의 사망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자료를 기반으로 한 남준우(2011)의 연구에서는 생존작가의 평균 거래가격이 54,919,200원이었던 반면 사망한 작가의 평균 거래가격은 65,582,700원이라고 보고하였다[18].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도 사망한 작가의 작품이 생존한 작가의 작품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작의 대상으로서 희소성이 높은 작가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위작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사망한 작가의 작품이 위작의 대상으로 선호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범죄 은닉의 용이성에 있다. 진위 감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대상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비록 천경자의 「미인도」 사례와 같이 작가와 감정전문가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작가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진위여부를 작가에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작제작의 범죄를 은닉하기에 용이하다.

결국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가격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은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술품 위작의 대상으로 선호될 것이며, 따라서 사망한 작가 작품의 경우 생존 작가 작품에 비해 진위감정의뢰가 더 많고 위작률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1: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진위감정의뢰가 많다.
- 가설 1-2: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위작률이 높다.

3. 작품의 거래빈도와 미술품 위작

특정 작가의 작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정도는 해당 작가 작품의 유동성을 결정하게 된다. 유동성은 자산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아무리 기대수익이 크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 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은 매력적이지 않다. 대체로 미술품의 유동성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유명 작가의 작품은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보다 유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2][20]. 소수 유명작가의 작품이 선호되는 현상에는 이와 같은 이유도 존재한다. 미술품의 유동성은 2차 미술시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2차 미술시장은 과거에 거래된 적이 있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작가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1차 미술시장과 달리 2차 미술시장은 구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는 시장이다[4]. 즉 2차 미술시장은 구매한 미술품을 되팔아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대표적으로 미술품 경매시장을 들 수 있다. 2차 미술시장의 발달로 인해 1차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미술품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기간이 과거의 40년에서 최근에는 5~7년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20-22].

대다수의 미술품 구매자들은 미술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12][13]. 여기에서 전문가의 판단과 대중의 관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특정한 소수의 작가가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13][14][23]. 이러한 작가의 작품들은 시장에서 쉽게 유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작자는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즉 유동성이 큰 작품을 위작의 대상으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유동성은 범죄 은닉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2-1: 특정 작가의 작품의 거래가 활발하면 그 작가의 작품은 진위감정의뢰가 많다.
- 가설 2-2: 특정 작가의 작품의 거래가 활발하면 그 작가의 작품은 위작률이 높다.

III. 실증분석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감정전문기관인 한국미술품감

정평가원에서 수집한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의 진위감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의 진위감정 의뢰 작품인 총 5,130점의 작품 중 진위감정이 불가능한 작품을 제외한 4,981점의 작품을 제작한 작가는 520명이다. 이들 작가 중 조각가를 제외한 회화작가는 277명이며, 회화 작가 작품중에서 미술품 경매회사에 출품된 작품경력이 있는 작가는 185명이다.

이 중 대통령직을 지낸 박정희와 영친왕의 배우자인 이방자는 특별한 신분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위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83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작가로서 종속변수로서 특정 작가에 대해 관련된 두 가지 변수, 즉 위작 의심을 받아 진위감정의뢰를 받은 작품의 수(진위감정의뢰 작품 수)와 진위감정을 받은 작품 중 위작으로 판별이 난 작품의 비율(위작률)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는 해당 작가의 사망여부와 해당 작가 작품의 거래빈도이다. 작가의 사망여부는 사망한 작가의 경우 '1'로, 생존한 작가의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작품의 거래빈도는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작품 수로 측정하였으며, 서울옥션과 K옥션에서 낙찰된 작품수를 작가별로 코딩하였다. 서울옥션과 K옥션은 국내 양대 경매회사로서 2008년말 경매시장 점유율이 90.4%에 이르므로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18].

표 2. 상관관계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029**	1										
3	.020	-.018	1									
4	-.058	.087	.034	1								
5	.240**	-.151*	.250**	-.053	1							
6	-.036	-.157*	.003	.141	.170*	1						
7	.232**	.051	.084	-.015	.329*	.219*	1					
8	.259**	.173*	-.154*	.234**	.106	-.025	.056	1				
9	.363**	-.068	-.027	.069	.013	.150*	.036	.002	1			
10	.259*	.165*	.103	-.126	.146*	.102	.387**	.123	.138	1		
11	.347**	.442**	.116	-.108	.035	-.259**	.169*	.250**	-.111	.328**	1	
12	.682**	.037	.056	-.192**	.205**	.053	.151*	.041	.426**	.241**	.145	1

*p<.05, **p<.01

1 감정의뢰작품수 로그, 2 위작률, 3 성별, 4 장르, 5 나이, 6 해외전시, 7 수상, 8 유학, 9 빅 3 화랑 전속, 10 국립현대미술관, 11 사망여부, 12 경매낙찰작품수

통계변수로는 위작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작가의 성별, 주된 장르, 나이, 해외전시여부, 각종 수상여부, 유학여부, 빅3화랑전속여부, 작품의 국립현대미술관(MMCA) 소장여부를 설정하였다. 작가의 성별은 남성은 '1'로,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장르는 서양화는 '1'로, 한국화는 '0'으로 코딩하였다. 작가의 나이는 생존작가의 경우 2014년 현재 나이를, 사망한 작가의 경우 사망 시점의 나이를 코딩하였다. 나머지 변수도 해당 사항이 존재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으며, 진위감정의뢰 작품 수와 경매낙찰 작품 수는 자연로그를 취했다. 다만, 경매낙찰 작품 수는 최소값이 '0'이므로 측정치에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표 1. 기술통계량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감정의뢰작품수	1	324	22.32	49.409
위작률	0	1	.21	.286
성별	0	1	.95	.228
장르	0	1	.76	.429
나이	36	101	72.04	15.014
해외전시	0	1	.70	.457
수상	0	1	.83	.376
유학	0	1	.48	.501
빅 3 화랑 전속	0	1	.16	.366
국립현대미술관	0	1	.85	.356
사망여부	0	1	.54	.500
경매낙찰작품수	0	365	37.27	54.549

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진위감정의뢰 작품 수에 대한 가설검증결과는 [표 3]에, 위작률에 대한 가설검증결과는 [표 4]에 표시하였다. 먼저 진위감정의뢰 작품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표 3]에서 작가의 사망과 높은 거래빈도는 진위감정의뢰 작품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1과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그 다음으로 위작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표 4]에서는 작가의 사망은 위작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2은 지지되었으나, 높은 거래빈도는 위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표 3. 진위감정의뢰수 회귀분석

	모델 0	모델 1	모델 2	모델 3
상수	-.592 (.647)	-.731 (.619)	-1.213* (.522)	-1.287* (.502)
성별	.053 (.477)	-.229 (.461)	-.090 (.382)	-.295 (.371)
장르	-.359 (.255)	-.255 (.245)	.111 (.210)	.166 (.202)
나이	.018** (.008)	.020** (.007)	.008 (.006)	.010 (.006)
해외전시	-.491* (.236)	-.208 (.235)	-.444* (.189)	-.233 (.190)
수상	.608 (.314)	.456 (.302)	.492 (.251)	.384 (.243)
유학	.769** (.220)	.527* (.218)	.653** (.177)	.477** (.176)
빅 3 회랑 전속	1.622** (.285)	1.757** (.274)	.507 (.254)	.666** (.248)
국립현대 미술관	.441 (.329)	.067 (.326)	.171 (.265)	-.096 (.264)
사망여부		.966** (.229)		.727** (.186)
경매낙찰 작품수			.614** (.062)	.583** (.060)
수정된 R ²	.270	.335	.533	.568
F값	9.388**	11.136**	23.918**	24.834**

*p<.05, **p<.01

표 4. 위작률 회귀분석

	모델 0	모델 1	모델 2	모델 3
상수	.265* (.129)	.231 (.120)	.246 (.130)	.223 (.121)
성별	.028 (.095)	-.041 (.090)	.024 (.095)	-.042 (.090)
장르	.063 (.051)	.088 (.048)	.077 (.052)	.095 (.049)
나이	-.004* (.002)	-.003* (.001)	-.004 (.002)	-.003 (.001)
해외전시	-.098* (.047)	-.029 (.046)	-.097 (.047)	-.029 (.046)
수상	.055 (.063)	.018 (.059)	.052 (.063)	.017 (.059)
유학	.082 (.044)	.023 (.042)	.079 (.044)	.022 (.042)
빅 3 회랑 전속	-.060 (.057)	-.027 (.053)	-.094 (.063)	-.043 (.060)
국립현대 미술관	.145* (.066)	.053 (.064)	.136 (.066)	.051 (.064)
사망여부		.237** (.045)		.233** (.045)
경매낙찰 작품수			.019 (.015)	.009 (.015)
수정된 R ²	.082	.207	.085	.204
F값	3.023**	6.253**	2.857**	5.643**

*p<.05, **p<.01

I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감정평가원에 진위감정의뢰된 미술품 5,130점을 작가별로 분류한 자료를 이용하여 총 183명의 작가에 대해 작가의 사망여부와 해당 작가의 작품의 거래빈도가 위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진위감정의뢰와 최종적인 위작률은 생존한 작가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작가의 사망은 미술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17][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술품 위작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작가가 사망한 경우 미술품의 제작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희소 가치가 상승할 뿐 아니라 위작 범위를 은닉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위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거래빈도가 높은, 즉 유동성이 큰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작품은 진위감정의뢰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적인 위작률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래빈도가 높은 인기 작가의 작품의 구매자는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나는 등 어떠한 계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인 구매할 작품에 대해 진위감정을 의뢰할 동기를 갖게 되지만, 실제로 거래빈도가 높은 작가의 작품에서 위작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개념들에 비추어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작품의 희소성은 위작을 제작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작품의 유동성만으로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위작 판매의 용이성보다는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에 위작 발생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가 다른 작가보다 위작률이 높다고 할 때 진위감정의뢰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특정 작가 작품의 실제 위작의 개수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작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위작감정의뢰의 개수가 적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위작률을 고려할 때에는 기준점을 위작의 개수에 둘 것인가, 또는 의뢰의 개수에 둘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 만약 위작이 작가별로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구매자들이 얼마나 작품의 진위에 대해 의심을 갖는가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작이 작가의 특성들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수행되었고 이러한 특성들이 위작감정 의뢰와 위작률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설명한 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위작 가능성에 대한 구매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거래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개 경매사의 거래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더 넓은 의미의 거래인 화랑이나 아트페어를 통한 미술품 거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더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작가의 대중성 등 질적인 요소나, 진위감정의뢰된 작품의 제작시기가 작가의 전성기인가 등의 자료가 보장된다면 작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미술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작에 대한 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이동찬, 진상, *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 동아일보사, 2008.
- [2] http://en.wikipedia.org/wiki/Art_forgery
- [3] 이선민, “미술품 위작: 미술품 위조근절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pp.43-61, 2011.
- [4] 김봉수, “국내 미술시장 현황 연구”, *경영관리연구*, 제6권, 제1호, pp.27-49, 2013.
- [5] 최병식, *미술시장 트렌드와 투자*, 동문선, 2008.
- [6] 김주삼, 김현숙, “회화의 진위 판정에 사용되는 조사방법 고찰”,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제20호, pp.323-341, 2006.
- [7] 윤범모, “한국근대미술품과 진위문제”, *현대미술학회논문집*, 제2호, pp.7-45, 1998.
- [8] 최태만, “미술품의 진위와 감정의 문제”, *문화예술*, 제270호, pp.48-51, 2002.
- [9] 최병식, *한국 미술품 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6.
- [10]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한국 근현대미술 감정 10년*, 사문난적, 2013.
- [11] 이광표, “진품그림 한장으로 가짜 두장 만든다: 국내에 범람하는 가짜 문화재 가짜 미술품”, *과학동아*, 통권214호, pp.46-51, 2013.
- [12] 이재희, *미술경제학: 현대미술시장의 이해*, 탐북스, 2012.
- [13] 최병식, “Art Market의 열쇠, 미술품 가격의 구조와 한국의 현실”,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제8

- 권, pp.64-88, 2005.
- [14] 신형덕, 김태황, 김명수, 김영선, “미술품 가격 추정에 있어서의 예술적 가치의 의의: 경매와 비경매 시장의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4432-4439, 2012.
- [15] R. J. Agnello and R. K. Pierce, “Financial Returns, Price Determinants, and Genre Effects in American Art Investmen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0, No.4, pp.359-383, 1996.
- [16] 최단비, 정태영, 신형덕, “미술작가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및 성별이 작품 판매 여부와 작품 판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아트페어 마니프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1582-1588, 2013.
- [17] 남준우, “미술품(그림) 가격의 결정 요인 분석: 호당가격제가 성립하는가”, *경제학연구*, 제56집, 제2호, pp.139-160, 2008.
- [18] 남준우,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과 투자 수익률 분석”, *경제학연구*, 제59집, 제1호, pp.5-24, 2011.
- [19] A. C. Worthington and H. Higgs, “A Note on Financial Risk, Return and Asset Pricing in Australi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30, No.1, pp.73-84, 2006.
- [20] 정운아, 박일호, “미술품 경매의 역할 증대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제14권, 제3호, pp.299-311, 2013.
- [21] 김순웅, *돈이되는 미술*, 학고재, 2006.
- [22] Leslie Singer and Gray Lynch, “Public Choice in the Tertiary Art Marke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18, pp.199-216, 1994.
- [23] Moshe Abler, “Stardom and Tal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5, No.1, pp.208-212, 1985.

저 자 소 개

김 나 원(Na-Won Kim)

준회원



- 2009년 3월 : 동아대학교 인문과 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 2014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문화예술경영, 미술품 경매, 예술이론,

신 형 덕(Hyung-Deok Shin)

정회원



- 2003년 8월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3년 8월 ~ 2006년 5월 : 조지메이슨대학교 조교수
- 2006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전략경영, 국제경영, 문화예술경영

정 태 영(Taeyoung Chung)

정회원



- 1991년 8월 : 미시간대학교 경영학박사
- 1991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국제경영, 국제재무, 재무관리